

○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본 경제 원리

강사문 ≪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 구약학

요즈음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 새해에 만나는 사람의 화두는 모두 경제 이야기이다. 지난 세기만 해도 몇 차례 경제공황과 위기(1929-39년의 대공황, 1970년대 오일쇼크, 1990년대 불황)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IMF(1997년)를 겪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사태로 야기된 경제위기의 영향을 맞게 되었으니 십 년 전 악몽을 잊기도 전에 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온 국민이 걱정과 불안에 싸여 있다. 만약 이것이 사회적 위기까지 치닫게 되면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경제 전문가들도 사전에 예견하지 못한 것을 비전문가인 목회자들이 예견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그 결과로 고통 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지난 세기의 경제위기의 주기(週期)만 보아도 1930년대에서 1970년대, 1970년대에서 1990년대, 1990년대에서 2000

년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위기의 주기가 짧아진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욕망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수가 주어지지 않는 한 더 짧은 주기로 위기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 나타난 경제 원리를 준수하는 길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 길만이 인류가 영구히 경제적 위기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의 목적을 왜곡한 인간의 욕망과 체제에서 비롯되었다. 인류는 지금까지 전제주의로부터 민주주의, 공산-사회주의 등 각종 제도와 주의를 통해 자신들이 희망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 공동체를 이룩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체제가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제도와 주의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지만 샬롬 공동체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빈부격차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가 온 것이다. 1930년대나 지금의 경제대공황이 자본주의의 고장인 미국에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란 부유한 나라들의 저수지에 물이 고갈된 것과 유사하다. 그들은 보호무역과 같은 댐을 만들어 저수지의 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관리하며 자기들의 이익을 방어하다가 그들의 욕심이 방대해져 결국 저수지 물이 고갈된 것과 같다. 우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구덩이가 있으면 먼저 채워진 후에 다시 아래로 흘러가듯이 대형 저수지에 물이 차야만 그 후에 나머지 물이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선 미국의 경제위기가 극복되어야만 연쇄적으로 그 영향이 우리의 위기 극복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세계화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 문화와 환경을 시장 지배(支配) 논리로 재편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돈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경제체제이다. 경제의 기본적인 목표는 경제(경제세민[經世濟民]의 준말)란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세상을 경영해

서 백성을 구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시장의 기능과 목표 역시 경제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고로 시장의 자유 그 자체가 경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인간의 이익과 편리에 봉사하는 수단이며 도구에 불과하다. 즉 시장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시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의 최우선 순위는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시장은 이를 위한 충실한 도구일 때에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물질적 재화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역과 투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한 평형의 공동체를 만드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오이코노미아(oikonomia)로 쓰이는 경제란, 돈의 축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이는 인간의 생존과 필요에 충실한 경제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성경의 경제 원리와 맥을 같이 한다(요 10:10).

우선 성경에서 2,350회가 넘는 구절들이 돈과 물질과 같은 재산에 대해 언급한다. 그렇게 많은 구절들에서 언급되는 이유는 성경이 인간의 삶과 직결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언급한 36회의 비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회가 돈과 재물에 관한 내용이므로 예수님도 돈과 재물에 관해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돈, 재물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어떤 경전보다 경제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필요한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도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과정 가운데 파생된 불순종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말대로 개신교의 금욕주의가 근대 자본주의를 형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자들의 착각은 재물의 주인을 인간들 자신인 것으로 판단한 데서 온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차용하여 점유하고 사용하

고 있을 뿐이므로 우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잊었다는 데서 문제가 파생된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원리는 어떤 것일까? 일반 경제학에서도 경제를 생산과 소비의 사회 질서로 정의하는 것처럼 성경도 생산과 소비를 연계시키는 원리를 제시한다. 더 나아가 재물의 나눔과 재분배의 원리를 첨가한다.

1. 노동, 생산과 부

성경에서도 우선 경제의 출발점은 노동의 결과인 생산과 공급이다. 빵이 먼저 만들어져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 생산은 노동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을 것이라고 한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 3:17-19).” 이는 인간이 평생 동안 그의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있는 한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이 일생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항상 일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농사짓는 농부로 표현한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는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모습은 이사야 5장 2절에 비유로 언급된다. “하나님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교훈한다(살후 3:10-12).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살전 4:11)”고 권면한다. 계

속해서 바울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살후 8:3)고 교훈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노동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요성까지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인간이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이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다(요 5:17).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경제행위의 시작은 생산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노동은 신성(神聖)한 것이다.

생산을 위한 노동에는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 대가는 일하는 자가 일을 한만큼 주어진다. 노동의 대가가 안 주어져도 문제이고, 너무 많이 주어져도 문제다. 노동 없이 주어지는 대가가 문제다. 노동 없이 얻는 소득, 즉 불로소득(不勞所得)이 문제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노동에 의한 소득에 정면 배치되는 소득이 바로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은 현대사회 구조에서 이자, 배당금, 채권, 지대, 고리대금,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돈을 버는 체제가 자본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서 불로소득은 흔한 일이다. 그래서 노력 없이 소득이 주어지는 불로소득은 사회의 불균형과 불만의 요인이 된다. 노동력이 있는 한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로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와 배치된다. 그러므로 육체적 내지 정신적 노동이 수반되지 않는 수입은 정당한 수익(收益)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정당치 않은 돈이 교회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정당한 수입에 기초해서 지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경제 활동이 된다.

올바른 생산이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산이다. 사람을 속이고 임금을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은 물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그것은 바른 생산이 아니다.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법

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원리이다. 생산의 목적도 사람을 돕는데 있으므로, 생산하는 과정 자체도 사람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생산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목적뿐만 아니라 올바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 따라 생산할 때 실제로 시장성이 없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칼빈도 다른 사람의 노동을 남용하거나 착취하는 것도 범죄행위로 간주했다. 동시에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임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을 공인하는 입장에서 보상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임금도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인간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할 수 없고, 임금의 정확한 액수는 쌍방이 그들의 재화와 노동으로 받는 열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책임을 진다는 신념 하에 결정할 때에 제대로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노동의 착취자들을 심판하고 응징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들의 불복종을 이용하신다고 칼빈은 단언한다. 그래서 칼빈은 비폭력 저항과 파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대가인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이 있다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생산을 위시한 경제활동에서 주의할 것은 독점(獨占)이라는 행위이다. 창조질서에서 독점은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에 해당된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즉 독점은 인간의 한계성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인간이 시공간의 힘과 재물을 다 갖겠다는 독점욕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그래서 생산과정에서 아무리 노동력과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초강국이라도 한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 독주할 때 경제위기가 파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가축, 떼, 종, 돈, 금과 같은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나 재물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재물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부(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복(福)이다. 부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이다. 윤리의 출발점은 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경건한 사람이 할 일은 재화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부에 대한 의로운 태도를 갖는 출발점이다. 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할 때는 부의 윤리를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신 목적은 부를 통해 그의 뜻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요 수단이다.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고 좋아한다. 그러나 돈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오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번 돈이라도 돈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인의 것을 잠정 활용하고 있는 것뿐인데 자기 것이라는 오해다. 땅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사고는 자본주의이고, 국가라면 사회-공산주의가 된다. 둘째,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해다.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돈이면 만사형통 할 수 있는 힘으로 생각한다. 돈이 인간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돈이나 하나님이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신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셋째,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오해다. 돈이 인간 행복의 열쇠인 양 선전하며 “잘 살아 보세”를 외치지만 풍요 속에 각박한 인심만이 두드러진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은 사람의 사고와 행동 전반을 지배하기 때문에 돈은 끝없는 유혹의 신(神)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돈은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힘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에 돈의 위험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선하므로 돈 자체도 선한 것이지만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긍정-부정의 태도에 따라

부자는 다 죄인이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우도 범한다. 생존의 필요성에 따라 돈이 요구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으나, 탐욕의 필요성에 따라 돈이 요구될 때는 많은 사회적 악과 문제를 유발한다. 그래서 돈을 필요로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딤후 6:10; 히 13:5).

2. 소비와 낭비

경제 활동의 둘째 단계는 소비이다. 소비는 소득을 전제한다. 가진 것이 없는데 소비가 있을 수 없다. 생산된 물품은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연계될 때 정상적인 경제 질서가 이루어진다. 공급과 수요의 과정에서 매점매석이나 과소비나 낭비도 문제이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허영과 욕망에 빠져 헛되게 쓰면 다른 사람이 쓸 것이 없으니 시장질서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혹 있다 하더라도 소득 이상을 지출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 탕자처럼 가진 것보다 쓰고 탕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눅 15:13). 그래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을 때 과소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과소비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음식 쓰레기로 낭비되는 식량 자원이 연 15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내 음식을 내가 남기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음식 쓰레기로 수조 원을 낭비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네 형제가 굶주릴 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마 25:40, 45). 지금 전 세계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8억 명(UNDP, WFP)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연 500만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죽어 간다고 한다. 북한에도 수백만 명의 굶주리는

사람이 있고, 남한에도 결식아동이 6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너무 먹어 비만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이다.

소비라는 맥락에서 유의할 점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한정 없는 소비와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검소한 생활과 절제와 절약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발전과 풍요만을 추구한다면 지구 환경의 종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는 2만 불 시대에서 3만 불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진 만큼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의 미래가 어둡다고 환경학자들은 경고한다. 후손들에게도 잘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삶에 만족하고 이웃과 같이 공유하는 삶을 택해야 한다. 균형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세계나 우리 사회는 양극화된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20대 80). 지금까지 인류는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활용해 보았지만 해결을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오늘의 용산 참사도 양극화에서 파생된 비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이 보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제 원리 외에는 대안이 없다.

3. 재물의 나눔과 순환(循環)

성경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는 재물의 나눔과 재분배를 위한 순환이다. 생산으로 인한 공급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므로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고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로 편중과 단절이 생기게 된다. 부의 나눔과 순환이란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질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청되는 부수적 요소이다. 원활한 경제란 돈이 잘 돈다는 말인데, 돈이 안 도는 불황기에는 돈 때문에 돈 사람이 많이 생긴다. 이런 돈의 단절을 막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으로, 종교

단체도 노력을 경주하지만,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성경은 이에 대해 나눔과 50년에 한 번씩 처음의 재산 상태로 순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희년법을 강조한다.

우선 나눔부터 살펴보자. 일반 사회인들도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한다.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실천 행위를 자각하고 가진 우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물론이고 북한을 위시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 사랑의 실천으로 돕고 모두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제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의 3.88%을 나눔에 사용하여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해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퇴직금을 합해도 5.28%이므로 이는 스웨덴(38.03%), 핀란드(35.39%), 덴마크(30.96%) 등에 비해 약 육분의 일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나눔의 세 가지 의미를 부연한다면, 첫째, 나눔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행위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임을 지적한다. 바울도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권고한다. 그래서 그는 “네가(디모데) 이 세대에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딤후 6:17)고 교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빌 4:19)이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레 25:23) 인간은 그 땅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불과하다. 모든 재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 재산의 원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므로 그가 없이는 피조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며(창 1:1),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자연의 생태계를 사시사철 관리하고 보존하기 때문이다(창 6:19-22; 느 9:6; 시 36:6). 그분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관리·보존하는 것이지, 재산이 남에게 팔아 양도되었다면 이미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둘째,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레 19:18)”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길이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데서 증명된다(요일 4:20).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데 있다(눅 18:18-30).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상처 받은 이웃에게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 줄 뿐만 아니라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다시 갚겠다고 하면서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자이다(눅 10:34-35). 재산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하나님까지 사랑하게 된 셈이다. 그러므로 재산의 나눔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가시적 증거이고, 곧 신앙의 척도인 셈이다. 요즈음 일자리를 나누고 고위직 사람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삭감하는 행위도 일종의 나눔의 행위로 사랑의 실천이다.

셋째,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順服)하는 의로운 행위이다.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운 행위인 것은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의(義)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돕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소득과 열매를 같이 나누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소유욕이 이 정의를 파괴한다.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의로운 일이며, 가난한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신명기 기자는 언급한다(6:25).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로워짐을 신명

기는 언급한 것이다.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무리 깨끗한 부자라도 하나님의 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필요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부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신명기 저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퍽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어라”고 한다(신 15:7).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려면 우리는 필요 이상을 소유할 수가 없다. 즉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혹 부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눅 18:22)고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에서 성직자의 독신제도도 가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제도이다. 그래서 소유와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 7:13-14).

마지막으로 이상적(理想的)인 경제법이라고 하는 자발적인 나눔도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희년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 재화의 재분배를 시도한다. 희년의 의의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여 준 처음의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다. 원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설정해 준 최초의 공동체가 가졌던 평등한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이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평등과 균형의 원칙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적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경제적 평등, 그리고 인권의 평등 원칙이 최소한 회

복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이 인간 대우를 받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희년법의 기본 성격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다. 약속의 땅의 원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고 이스라엘은 품꾼으로서 분배된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데 그 소임이 있을 뿐이다.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품꾼이 주인의 땅을 아주 팔아 버릴 수는 없다(레 25:23). 품꾼으로서 위탁된 땅을 어쩔 수 없이 잠정적으로 전당잡히는 것이 묵인될지는 모르지만 영구히 주인의 땅을 전당잡히거나 팔 수는 없다. 엄격한 의미에서 성경은 재산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나 사용자가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나안 입주 후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많이 가진 자도 없고 적게 가진 자도 없는 균형 잡힌 사회였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모두가 형편에 맞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갖고 평화롭게 살던 공동체였다. 그러나 문제는 5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런 경제-사회 구조와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데 있었다. 가진 자는 점점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점점 더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몸까지 팔려 종의 신세가 되며 결국은 인권이 유린되는 노예상태로 변하게 되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뚜렷하여 사회는 현저한 계층사회가 되었고, 사회갈등과 부조리 등의 사회악이 판치게 되었다. 가진 자는 불로소득에 의해 계속 비대해지고, 사회악과 부조리는 팽배해지며 못 가진 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희망보다는 좌절이 점점 깊어 가는 사회현상은 구조적인 사회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사회와 같이 사회악 또는 구조적인 악이 만재한 상황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고대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된다. 혹자는 사회혁명을 희망할지 모르나 파괴적인 사회혁명은 또 다른 파괴적인 혁명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변혁은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부의 편중과 부조리의 장기화를 막는 방법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평화적 상호 순환이 이루어진다면, 희생이 요구되는 사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즉 가진 자가 못가진 자에게 베풀어 주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희년은 부의 편중을 50년을 주기로 해서 순환적 회복(循環的 回復)을 시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런 주기적인 순환(return)에 대한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것은 요사이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여론이 대기업들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요청하는 것과 비슷한 태도이다. 즉 불균형 사회의 이런 모순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어진 대책이 곧 재분배이다. 재분배 방법은 곧 처음 받았던 분량만큼 갖고 나머지는 처음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배받았던 것을 잃었던 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되찾는 일이다. 분배받은 것보다 더 가진 자는 나누어 주고 분배받은 것보다 못가진 자는 되찾아 분배받은 양만큼 갖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불균형인 상태를 원상회복하여 균형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이 희년의 목적이다. 인권이 유린된 자들은 인권 회복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구속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구속에서 뿐만 아니라 불가시적인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는 구속(救贖)의 공동체가 희년(禧年)을 통해서 재건된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탐욕에 따라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진 자를 부자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감으로 필요한 것만 가진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한다. 성경은 필요한 것조차 못가진 자를 미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난은 개인의 책임보다 인위적인 것에 또는 불가항력적인 것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제도와 시책, 또는 천연적 재해로 인해 가난한 자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난을 해결하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요청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지 동정이나 적선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

님의 자녀이고, 특히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 즉 고아, 과부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직자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할 수 없다. 성경은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이 …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서 참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신 15:4)라고 말씀하신다. 본인 스스로 자기를 가난한 자로 판단할지라도 주변에 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된 훈련을 마친 후 얻은 교훈에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고 말씀하신다(출 16:18; 고후 8:15). 필요 이상의 것을 거둔 자는 필요 이상의 것을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희년의 경제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말론적 희망으로, 구원의 은총으로 주어져야 할 메시지이다.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촉구하는 메시지이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눅 18:22).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어울리는 살롬 공동체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구원 공동체일 것이다.

:: 강사문 연세대학교(Th.B., Th.M.)와 미국 필립스신학교(M.Div.)를 나와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로 있다.